

장성군 공공급식센터, 지역 농산물 소비 거점화

7월 준공...상무대와 상생협력 장성 농산물 공급 활성화 기대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나섰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와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군은 최근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근무지원단, 57정보통신대대 등 상무대 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장성군 역점사업을 공유하고, 상무대 급식사업과 지역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

7월 준공 예정인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장성산 먹거리가 상무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를 학교, 복지시설 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장성지역 농산물 공급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한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3만 5000여명 규모의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이다. 발생하는 급식 수요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간담회를 마친 상무대 관계자들은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삼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삼서농협 근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를 찾아 산지에서 수확한 먹거리가 위생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김한중장성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무대와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열어주고, 군부대에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며 "상무대와 적극 협력을 발판 삼아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유봉현 기자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 교육 곡성군, 도시민 9가구 대상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9가구 1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배 귀농귀촌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농업미생물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을 견학해 최신 농업 기술과 농산물 가공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이후 축산,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사를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똑방마켓을 탐방하며 지역 내 문화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곡성=김대명 기자

6월 자동차세 납부 독려 장성군, 30일까지

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9197건, 총액 16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다. 6월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연세액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재난위험시설 집중안전점검 나주시, 88곳 마쳐

나주시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관내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도로·교량, 관광·숙박 시설, 건설 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의료기관 등 88곳에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14건은 점검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중대 결함 또는 위험요인이 확인된 11건은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등 점검자 책임 강화, 집중안전점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 보수·보강 추진 실적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도 힘을 예정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화순군, 능주들소리 민속공연

화순군이 능주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역사관에서 대동 한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들소리' 민속공연을 펼쳤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모내기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 논 고사 후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흥겨운 모내기 상사 소리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이날은 나주 동강 봉추 들노래보존회가 참가하여 나주지역의 들노래를 창조 공연하면서, 영산강 유역 평야 지대의 들소리를 매개로 보존회끼리 서로 연대하는 유의미한 모습을 선보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금까지 '능주들소리'의 맥이 끊기지 않게 보존회를 이끌며 보존·전승에 힘써 주신 보존회 회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귀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여름 폭염 대비 축사환풍기 지원 함평군, 관내 한우 사육농가

함평군이 축사 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한우 사육 농가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녹색축산 등을 인증한 한우 사육 농가이며, 지원규모는 총 500대(군비 50%·자부담 50%)이다.

앞서 지난 5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한 28농가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한우 사육 농가에 축사환풍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 여름 축사 내 고온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가족 관리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이 능주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역사관에서 대동 한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들소리' 민속공연을 펼쳤다.

화순군 제공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전 국민 공모

7월14일까지 진행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처 발굴에 나섰다.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부금 활용 방안을 두고 전 국민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응모는 전 국민 누구나 시청 누리집, 이메일(kang7769@korea.kr), 우편(나주시 시청길 22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등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등을 평가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심의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은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의 시상금이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시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나주시 고향사랑팀 관계자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

관부서로 배치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며 "내 고향, 부모의 고향, 제2의 고향 나주를 향한 기부자들의 선한 나눔이 기쁨과 보람이 되도록 사용처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접속 또는 농협을 방문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총액의 30%한도 내에서 나주시 답례품 30종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영광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군민 맞춤형 시책이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48개소 음식점에 테이블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으로 영업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올해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입식테이블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으로 하면 된다.

강종만 영광 군수는 "군민과 이용객의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니 음식점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